

“길에서 죽은 동물들이 미안”

거제 금강사 로드킬 야생동물 위령제

인간의 무관심 속에 길에서 죽어 간 동물들의 혼을 기리기 위한 ‘야생동물 위령제’가 6월 5일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에서 열렸다.

이번 위령제는 일반인에게 로드킬(Road-kill)의 실태를 알리고 범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거제 금강사는 2010년 착공 2017년 완공할 거제-통영간 고속도로가 지나게 된다. 대웅전과 거리 33m, 높이 17.9m. 산신각에서는 불과 15m 정도 거리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게 된다. 주지 성원 스님은 “이 공사로 인해 생태계는 교란에 빠져, 멧

돼지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의 로드킬은 볼 보듯 뻔한 결과”라고 말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회는 “거제 지역에는 이미 수백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차에 치어 죽거나 인간이 만든 시설물에 갇혀 죽음을 당하고 있다”며 “난개발은 자연을 파괴하고 생물의 멸종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위령제에서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문제를 다룬 황운 감독의 생태다큐멘터리 ‘어느 날 그 길가에 서’를 상영했다. 박지원 기자

푸른 대숲에서 나를 찾다

밀양 표충사

녹음명상 템플스테이

힘들고 지친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자 들어온 산사. 하지만 산사에서의 1박2일이 흐른 지금, 그들은 놀랍게도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준비를 한다. 내 뜻대로 되는 법이 없는 세상을 현명하고 즐겁게 맞는 방법. 산사수련회에서 배우고 간다. 5월 31일~6월 1일 1박2일간 밀양 표충사에서 열린 ‘녹음(綠陰) 명상 템플스테이’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대나무숲에서 명상 체험을 할 수 있는 표충사 녹음명상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새벽 예불로 천지를 깨우다

6월 1일 새벽 3시. 부족한 잠을 깨우는 목탁 소리로 하루가 시작된다. 표충사(주지 청운) 템플스테이에서 맞는 새벽은 천지만물을 하나 둘 깨우는 사물의 소리로 시작된다.

템플스테이를 지도하는 혜일 스님은 “최가족을 붙여 만든 밧고는 땅의 짐승을, 구름 모양이 섞인 운판은 하늘의 날짐승을, 물고기 모양의 목어는 물 속 생물을, 범종은 천상과 지옥의 중생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불전사물의 율법을 설명했다.

이어 모든 참가자가 법당에 모여 첫 새벽예불을 시작했다. <천수경>, <석가모니불 정권, 참회와 발원, <반야심경> 등 새벽예불, 108배, 은둔방 참선으로 약 3시간동안 진행됐다.

아침 공양 후 청운 스님은 참가자들과 차를 마시며 “불교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자연에서 목은 마음을 툴다

표충사의 템플스테이가 타 사찰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바로 ‘녹음명상 프로그램’ 때문. 표충사를 둘러싼 밀양 재약산은 울창한 대나무숲과 사자평 갈대숲, 산들늪이 있어 자연에서의 녹음명상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산길을 따라 십여 분 걸어가면 3만5000평의 아름다운 대나무 숲에 다다른다. 이곳은 과거 원효 대사의 창건 터인 죽원정사로, 참가자들은 대나무숲속 바위 위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소리에 집중한다. 이어 사자평의 역새발을 둘러본 후 증중폭포와 흑룡폭포 계곡도 산책했다.

또한 천연 생태의 보고로 최근 보존의 목소리가 높아진 산들늪 생태 체험도 진행됐다. 밀양참여시민연대 이수환 위원장은 “생태계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템플스테이에서 산들늪 생태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찰 주변 불교문화재와 더불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사찰 뿐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면서 참가자들에게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행의 끝은 즐거움

예불과 녹음명상을 마친 참가자들이 다시 선방에 모여 앉아 1박2일간 달라진 내면을 관찰했다. 소감문을 통해 이곳에 오게 된 이유와 자책했던 능력, 안분지족의 마음까지 풀어놓았다. 어느 한 사람 허투루 하는 것이 없이 사투 진지한 가운데 회향식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소감문에 1박2일의 깨침, 성찰, 인고의 과정을 그대로 답았다. 무거운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들른 산사에서 당당하게 현실과 맞서는 법을 배우고 돌아간다.

표충사 녹음명상 템플스테이는 매주 토요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주말을 이용해 산사 체험과 더불어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055)352-1150, www.pyochu.org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 불운대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교복입고 씩씩하게 자라요!”

“할머니 혼자서 잘 키우시는데 교복을 사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했어요(김찬욱·17·다대고).” “이 교복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저보다 어려운 아이들 돕는 사람 될래요(배태준·14·다대중).”

5월 26일 부산 불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부교육청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교복 전달식’이 열렸다.

하는 복지관에서 교복지원이라는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승낙했다”고 교복지원사업에 동참하게 된 뜻을 밝혔다.

한편 5월 26일에 열린 ‘사랑의 교복 전달식’은 학생 60여명과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오순입, 사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정석환 과장, 내원정사 약사회 안병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사에서 서부교육청 오순입 과장은 “경제 여건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봉 스님은

연등 손수 만들어 판매 수익금으로 교복 지원 80여 청소년에 점심·저녁 제공·활성화 계획

님오신날을 전후로 전 직원이 자원봉사자들과 뜻을 모아 연등을 손수 제작 후 판매해 거둬들인 수익금으로 교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교복을 지원받게 된 학생들은 부산시 서부교육청 다대동 일대 5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들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한부모가정 세대, 조손가정 세대, 장애인부모가정 세대 자녀들로 중·고등학교 1학년 42명을 선정해 각각 학복 상의 2벌과 하의 1벌씩 지원했다.

기존 교복 한 벌의 가격은 수십만 원대로 교복사마다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이번에 교복을 제작한 교복사의 한 벌 가격은 겨우 7만 2000원. 복지관 측과 연계해 원재료를 값싼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교복지원업체 티메이드 사장 전이수(53)씨는 “아내가 봉사활동

“예전에 KBS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 한 가정을 후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다름 아닌 교복 지원이었다”며 사랑의 교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랑의 교복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저녁 학습지도나 평일 석식지원 등도 계획 중”이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뜻을 밝혔다.

불운대종합사회복지관 김미진 과장은 “교복을 제작하기 위해 치수를 재다 보면 또래 아이들보다 체적이 왜소하고 마른 학생들이 많은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리부족 탓”이라며 “현재 매일 80여 명의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중·석식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차향처럼 맑고 향기롭게”

제14회 동래차밭골문화제 열려



금어사 선다회가 햇차공양 시연회를 선보이고 있다.

제14회 동래차밭골문화제가 5월 31일 오후 2시 금강공원 내 금어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수확해 만들어진 햇차를 다 함께 공양하고, 시민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담소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차밭골다신제를 시작으로 능소화나무 헌다례, 말차오방선 명상 헌공다례, 부산시민 차밭

골 시사랑백일장, 30인 숲길시화전과 시낭송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렸다. 또 차밭골 동인지의 네 번째 출판 기념봉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림사 주지 명예 스님, 문화예술원 김해광 원장, 천주교 김계춘 신부, 부산평화방송 김성주 신부, 시조시인 30명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 (051)632-0064

통영 용봉사 옥외불 점안

통영 용봉사(주지 혜명)에 대형 천연 옥외불상이 봉안된다. 용봉사는 6월 15일 오전 천연옥외불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점안되는 옥외불상은 길이 12m 높이 24m 규모다. 금강불교 총무원장인 혜명 스님은 7년간에 걸친 불사를 회향하면서 “희유한 선몽으로 귀족석을 발견하고 어려운 가운데 불사를 완성하게 됐다”며 “많은 불자들이 점안법회에 동참해 신심을 증장할 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모든 중국인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국티벳센터 광성사 중국지진희생자 위한 기도회

한국티벳센터 광성사(주지 소남갈젠)는 6월 1일 오후 4시 법당에서 ‘중국지진희생자를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티베트 고승 팰덴 다패 스님은 특별법문에서 “쓰촨성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중국인들이 빨리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며 “티베트는 중국정부의 행동에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유감은 없기에 티베트와 중국 모두 자비심으로 평화롭게 기원한다”는 내용의 기도문을 참석한 신도들과 함께 낭독했다.

한편 광성사는 15일과 22일, 29일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공성과 연기’에 대한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고무신코 만 행화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지압슬리퍼
• 가격: 5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지압·동칼창
• 가격: 15,000원
• 사이즈: 230-280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9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밴드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망사단화
• 가격: 7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콘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재)한중원 한국불교 대승 조계종 입증안내

입증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대승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불기 2552년 4월 15일 창종 하였습니다.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중정 성수(聖壽)

원로원장 관 각(觀覺) 종회위원장 경공(經供) 총무원장 법광(法光) 사정원장 성해(性海)

입증 구비서류

- (1) 입증신청서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호적초본 1통
- (4) 여권용사진 4매
- (5) 승려증명서(전 종단 승려증, 사찰 등록증 사본)
- (6) 사찰전경사진(내외)

■ 총무원: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 010-4457-6556

3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영천목공예사

http://www.ycwoodart.co.kr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물관 출판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옷칠 수작업 목탁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옷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 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수작업 목탁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경북 영천시 언하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중식]